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7일 화요일 음 2월 16일 (8월)

한라칼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0℃, 낮 최고기온은 16-21℃로 예상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문영택 (사)실로레비 이사장

수산리가 품은 비경과 비사 그리고 '양수의 난'

수산 들녘에 무성했던 수림은 광활한 초원으로 바뀌어 갔다. 탐라목장 경계지역의 담밭 속에는 제주에서 가장 긴 잣정이 숨어 있고 마을에는 원의 아막(阿幕)이 있던 자리인 가막자리·아막(阿幕)좌리(座里)라 불리는 곳도 있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조정은 1105년 탐라국을 탐라군으로 1153년에는 군보다 아래인 탐라현으로 낮추어 현령을 파견했다. 탐라현령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최척경은 양수의 난과 관련이 매우 깊은 인물이다.

가문인 양수 등이 수탈을 일삼는 현령을 축출하려 민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최척경이 다시 현령으로 온다면 항쟁을 멈추겠다고 했다. 이윽고 가족을 동반한 최척경이 현령으로 다시 오자, 백성들은 스스로 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수 등 7명은 참수됐다고 전해진다.

아막이 들어서기 훨씬 전인 1168년 이 땅에서 최초로 발생한 민란의 장두 양수 등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도 수산2리(甯山) 양수동 별리리굴을 비롯해 수산평과 수산한못, 수산진성과 대왕산 등 다양한 비경과 비사가 넘치는 곳이 수산리였다. 수산평은 옛 탐라목장 지경이고 수산한못은 수산평의 말들이 목을 축였던 연못이다.

조선 영조 때 편찬한 '동서강목'에 '비사감 최척경은 청렴해 가는데 마다 명성을 쌓았다.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을 잘 다스린다고 소문이 났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최척경의 명성은 자자했다고 한다.

수산2리 양수동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수는 백성들을 위해 장두가 된 최초의 제주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육지에서는 1170년부터 민란이 일어난 것에 비해 탐라에서는 2년 앞서 대규모 민란인 '양수(良守)의 난'이 일어났음도 전해지고 있다.

무성한 대나무 숲들이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 그곳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198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곳 도처에 있던 당시의 집터와 골목들은 지금 밭으로 정비됐다.

1162년 탐라에 온 최척경은 전임 현령들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폐단을 바로잡으며 3년 동안 선정을 펼친 후 아쉬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그런데 3년 후인 1168년 탐라백성들이 당시 현령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다. 토호세력

한편 양수의 난은 백성들을 등에 업은 탐라국의 주도세력과 소외된 토호세력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일어났다는 시각도 전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미세먼지 (PM10)

Table with PM10 forecast: Good, Normal, Bad, Very Bad.

초미세먼지 (PM2.5)

Table with PM2.5 forecast: Good, Normal, Bad, Very Bad.

월드뉴스

우크라이나 언론, '진실' 이냐 '공익' 이냐

전쟁 이후 탐사보도 단 한건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언론인들이 정부 및 관료 비판이란 언론 본연의 의무와 공익을 위한 전시 보도 제한 의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자회견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초기 자국 정부와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우크라이나 언론인들이 최근 들어 관리들의 부패에 대한 보도를 재개했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에 대한 우호적 여론과 전시 검열 제도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명을 포함한 15명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관리들을 경질했다. 이처럼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가 다시 활기를 찾는 듯했지만, 군 자체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시 언론 제한 규정에 더해 군이 언론인들 역시 보호해준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현지 언론인 유리 니콜로프는 지난 1월 군용 식품 계약에 대규모 비리가 있다는 뉴스를 취재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 내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탐사 보도는 단 한 건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열린마당

지구촌 축제로, 제주들불축제를



문명숙 민속보존회제주지협회장

'2023 제주들불축제'가 '희망을 품은 제주들불, 세계를 밝히다'란 주제로 3월 9-12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코로나19와 대규모 산불로 취소됐던 축제를 4년 만에 대면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축문을 화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도민들의 액운을 태워버리고 풍요와 행복, 희망의 좋은 기운이 불꽃처럼 피어오르기를 바라며 지구촌의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지방소득세 함께 신청하세요



김동환 제주시청 세무과

매년 초 급여생활자의 주요 관심거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 시기는 누군가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때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에 1년 동안의 소비내역을 보고 크게 놀라기도 한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낸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제주들불축제는 새별오름 전체를 태워버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축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2019년), 문화관광축제(2020-2021년)로 지정될 만큼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축제로 우뚝 섰다.

무엇보다도 연말정산을 꼼꼼히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음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

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낸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축제는 가족 방문을 위해 해충을 없애려 들불을 놓던 제주의 옛 목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and horticulture, featuring various plant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nggul Myeomok' (감굴묘목) featuring a list of plant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nggul Myeomok' (감굴묘목) featuring a list of plant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nggul Myeomok' (감굴묘목) featuring a list of plant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